

## 히로시마의 불

**19** 45년 8월, 역사가 열린 뒤 사람의 손으로 저질러진 가장 끔찍한 일이 아시아 대륙 저만치의 일본 땅 히로시마(廣島)에서 벌어졌다. 일본인에게 있어 그들의 영토는 13세기 말 원나라 전함을 전복 시킨 카미카제(神風) 이후 참으로 안전한 땅이었다.

새벽 2시에 태평양의 공군기지를 출발한 미국의 B-29 폭격기는 8월 6일 아침 일본의 서쪽 상공을 나르고 있었다. 목표는 나가사키, 고쿠라, 히로시마, 이 세도시 가운데에서 날씨가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시계(視界)폭격을 하게 된다. 때마침 히로시마의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조종사는 고도를 낮추어 낙하산 3개를 떨어뜨리고는 기수를 돌려 손살같이 되돌아 갔다. 소풍길 처럼 한가로이 내려오던 낙하산이 땅에 떨어진 뒤 폭음, 섬광과 함께 맑았던 하늘에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하느님!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이까.”

지우개로 칠판을 지우듯, 세상이 열린 뒤 최대 위력의 폭격이 히로시마를 삼켰다. 사망 247,000명... 3일 뒤 나가사키가 사라졌다. 그날, 고쿠라의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있었다. 수십만 도시인구의 운명을 가른, 실로 대단한 어느 여름날의 먹구름이었다. 그리고 6일 뒤 일본은 아무 조건없이 연합군에 항복하였다.

폭격이 있은 뒤 후쿠오카(福岡)현에 살던 야마모토(山本)씨는 히로시마의 폐허가 된 숙부의 집에서 타남은 원폭의 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념의 불, 한의 불로서 남 모르게 그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후일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 후쿠오카현의 사람들은 이 히로시마의 불을 평화의 불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밝혀오고 있다.

“핵무기의 사용은 인류의 생명과 모든 문명을 파괴한다.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전 인류의 사활이 걸린 긴박한 문제이다.

제2의 히로시마를

제2의 나가사키를

지구상 어디에도 출현시켜서는 안된다.”

이것은 「히로시마의 어필」이다. 1988년, 3천만명의 사람들이 이 어필에 서명하고, 히로시마의 불과 나가사키의 원폭 잔해로부터 채취한 불을 합하여 뉴욕에서 열린 제3회 UN 군축특별총회에 제출하였다. 그후 1990년 7월, 수도인 東京의 우에노에 있는 東照宮 경내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 불을 밝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비둘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은 화대(火臺)에서 호롱불처럼 희미한 불꽃이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용케도 타고 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휴전 후 35년만에 올림픽을 치렀고, 그날 프랑스의 세계적인 신문 “르몽드”는 서울을 불사조로 비유하였다. 말도 많은 핵문제가 끊임없이 뉴스로 이어지는 지금, 원자폭탄으로 사라졌던 히로시마가 49년만에 아시안게임의 주 무대로 돌아왔다.

광복과 패전, 매년 8월 15일을 맞는 심정에서 우리와 일본의 차이만큼, 「히로시마의 불」에 대한 생각도 일본인은 다르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그럴만하였던 일이고 원폭의 피해란 있을 수 없는 일인 셈이다. 극일(克日)의 방법 가운데 스포츠도 포함된다면 히로시마의 금년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FLI)** 金 東 一 /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